INHA UNIVERSITY

HISTORIAN

Vol. 15

학과장님 말씀

〈사필귀정〉
(事/'史'必歸正)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부정직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사실과 이해를 거스르려는 일들이 뻔뻔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쿠데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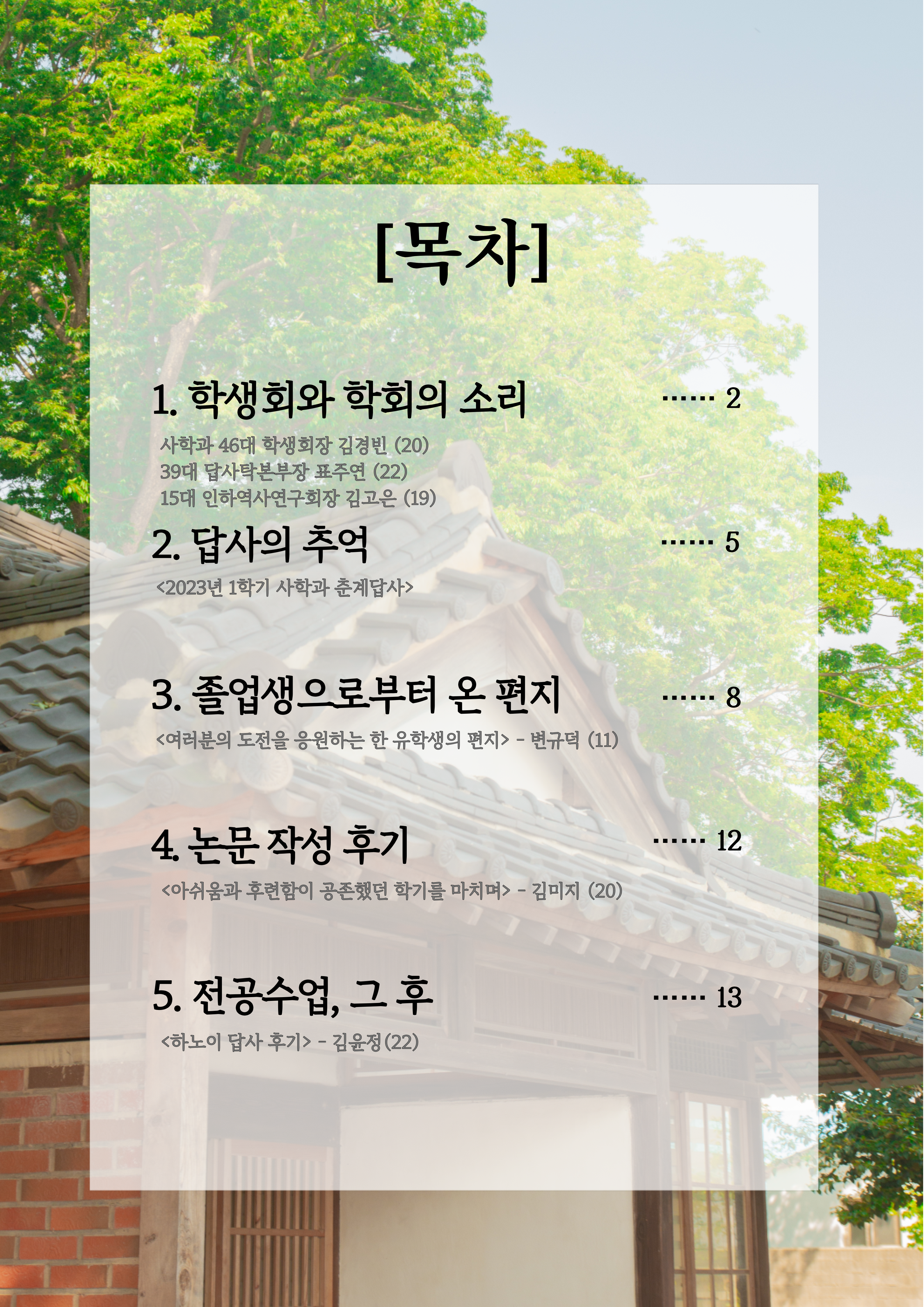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역사학 관련자로서 더욱 정신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란 성어가 생각났고, 여기서 '事'를 '史'로 변형해 봤습니다. 글자를 바꿨다고 원래의 교훈이 크게 변질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역사학 연구(자)는 반드시 거짓을 바로잡는다" 정도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올 1학기 사학과에서는 23학번 새내기들을 열렬하게 환영했고, 8월에는 몇 명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줬습니다. 2학기에는 오랜만에 해외 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학과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동문체육대회, 사학인의 밤 등)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인하사학'의 전통이 재차 확인되고 향후 비견이 제시되리라 믿습니다.

2학기에도 역사학 전공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잊지/잃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사필귀정(事/'史'必歸正)

2023년 8월 30일

사학과 학과장 임학성



[목차]

1. 학생회와 학회의 소리 …… 2

사학과 46대 학생회장 김경빈 (20)
39대 답사탁본부장 표주연 (22)
15대 인하역사연구회장 김고은 (19)

2. 답사의 추억 …… 5

<2023년 1학기 사학과 춘계답사>

3. 졸업생으로부터 온 편지 …… 8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 유학생의 편지> - 변규덕 (11)

4. 논문 작성 후기 …… 12

<아쉬움과 후련함이 공존했던 학기를 마치며> - 김미지 (20)

5. 전공수업, 그 후 …… 13

<하노이 답사 후기> - 김윤정(22)

학생회의 소리

46대 학생회장 김경빈

안녕하세요. 사학과 46대 학생회장 20학번 김경빈입니다. 따뜻했던 계절들을 지나 다시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를 맞이하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나는 듯 합니다. 이제 올해도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2학기도 잘 마무리한 이후 2023년을 행복했던 해로 회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과거처럼 코로나 19의 규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개강 전에는 신입생들을 맞아 3번의 정모를 진행하였으며, 수강신청 설명회 및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개강 직후에는 4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오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가보는 대면 새터이기에 준비 및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터에서 신입생 친구들이 서로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연합MT와 중간고사 간식드리미를 진행하였으며, 5월에는 춘계 학술 답사와 기말고사 간식드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종강총회를 진행하고 학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계속해서 충전기 및 도서 대여 사업, 민원함 운영, 피드백 조사, 과방 프린터 운영과 같은 상시사업들도 실시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부터 사학과 자료실 도서목록 정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도서목록 정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2학기에 사학과 학생회에서는 1학기 때 진행했던 사업들에 더해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23일에는 동문체육대회, 11월 11일에는 사학인의 밤의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에 제정되었던 사학과 학생회칙의 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들도 계획 중이니 학생회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회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김종휘 조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하시는 일들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동안 고생해준 우리 학생회 집행부, 그리고 학생회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거때부터 항상 많은 힘이 되어준 부회장 윤정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에서 많은 직책들을 맡아왔지만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무게감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부담을 항상 느끼지만, 사학과 학우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잘 해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회장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학과 46대 학생회 '사색'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사탑본부의 소리

39대 답사탑본부장 표주연

안녕하세요. 39대 답사탑본부장 22학번 표주연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벚꽃 핀 설레는 봄이 된 지가 엊그제인 것만 같은데 벌써 뜨거운 햇살이 반기는 한여름이 왔습니다. 지난 학기는 저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학기였습니다. 1학년 새내기로서 선배님들이 이끄는 집단의 활동에 단순히 순응하여 이행하는 게 아니라 2학년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나아가 답사탑본부장으로서 학회라는 집단을 직접 가꾸는 시간이 되었던 학기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난 학기는 막중한 시간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회의 부장이라는 자리가 저에게 주는 부담감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항상 집단의 대표자는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안고 가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인지라 지난 학기를 긴장감이 포함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학회의 부장이라는 자리가 걱정이 앞서고 부담이 되는 자리였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집행부라는 존재가 있어서 많이 의지하고,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아 제 능력 이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서툰 저를 믿고 학회의 활동을 도와주고, 때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던 집행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든든한 집행부원들 덕분에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답사탑본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학회 답사탑본부는 부장과 집행부원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새내기 부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내기였던 2022년에는 당시 부장님이 ‘새내기를 위한 답탁’이라는 테마로 저희 22학번들에게 즐거운 학과 생활을 제공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새내기들이 메인이 되는 답탁을 만들어보자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탁의 주인공 역할을 자처해주신 분들이 23학번 새내기 부원들입니다. 저를 믿고 답탁에 가입하여 여러 활동을 하며 좋은 경험을 공유해주신 새내기 부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답사탑본부의 활동에 진심으로 즐겁게 활동해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다양한 경험 쌓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여 더욱 흥미 있는 답사탑본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학기는 분명 저에게 있어 여러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추억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부원들께 감사드리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답사탑본부에 부끄럽지 않은 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파이팅!

사랑의 소리

15대 인하역사연구회장 김고은

안녕하세요,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의 15대 학회장 19학번 김고은입니다.

2022년 휴학을 결심한 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올해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할 때의 떨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막을 내리고 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복학을 했을 때 가장 떨렸던 부분은 학회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염려로 가득 찼었던 지난 1학기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의 학회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평을 쓰고 난 뒤 학회원들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회를 통해 얻어간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학회원들도 함께 느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인하역사연구회는 격주 금요일 6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회원은 상시 모집 중이니 관심 있으신 학우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인하역사연구회 인스타그램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기와 여름방학에는 함께 선정한 도서를 바탕으로 서평을 쓰는 활동을 했고, 2학기에는 에세이 활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학기 때 선정한 도서는 ‘동아시아를 발견하다’ (저자 쑹녠선)입니다. 이 도서는 동아시아인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한·중·일삼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하역사연구회는 지난 1학기에 특별히 문과대 연합 학술제에 참여했습니다. 부스 운영과 학회에 관한 짧은 발표로 이루어진 학술제에서 인하역사연구회는 난센스 형식의 한국사 문제를 냈었습니다. 학술제가 시험기간에 있었던 터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준비도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여해주고 도움을 준 학회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와 활동을 하게 된 신입생 학회원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수, 치민이, 재형이, 현태에게 좋은 학회장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학회 활동에 잘 참여해주어서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올 2학기에는 더 활성화되고 학술적이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 집행부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학회 집행부 대부분이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쁘고 고민이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집행부로 같이 활동해줘서 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학회원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이 감사한다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꾸준히 활동해주시고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하역사연구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더 나아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역사학도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선배, 동기, 후배들과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배움의 즐거움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관만 하셔도 괜찮으니 역사에 대해 나누고 싶은 학우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보통 광복절 이후에는 날씨가 점점 가을에 가까워지는데, 올해의 여름은 아직도 가을의 문턱을 채 넘지 못한 채 우리의 곁에 남아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2학기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역사연구회 ‘사랑’의 학회장 김고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사의 추억

2023.05.10~2023.05.12

최유식(21)

안녕하세요. 2023년 사학과 정기답사준비위원회 위원장 21학번 최유식입니다.

5월에 진행되었던 2023학년도 사학과 춘계 정기답사는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라북도 군산, 부안, 김제, 고창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정기답사는 답사준비위원회 체제로 처음 진행된 정기답사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사학과 정기답사를 사학과 학생회 내 답사부에서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으로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제약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사학과 학우 여러분들의 더욱 의미있는 답사를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정기답사준비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기답사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답사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정기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주어진 정기답사준비위원장이라는 역할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정기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임하는 데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더욱 더 많이 신경쓰고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앞섰던 나머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정기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답사 수업을 진행하시며, 정기답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던 유창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쁘신 와중에도 선뜻 귀한 시간 할애하시며 정기답사에 참여해주셨던 임학성 선생님과 우경섭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답사 진행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고 고생해주신 김종휘 조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답사에 참여하셨던 여러 사학과 학우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불평불만 없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별탈없이 무사히 정기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저와 함께 해주었던 김경빈 학우와 김윤정 학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해외 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 답사를 진행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점을 바탕으로 학우 여러분들께서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해 갈 수 있는 해외 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의 추억

2023.05.10~2023.05.12

김경민(17)

안녕하세요. 17학번 김경민입니다.
이번에 학과 정기 답사에 참여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학기 정기 답사 이후 꽤 오랜만에 떠나게 되는 답사였기에, 매우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학년을 생각해 볼 때 대학생 신분에서 떠나는 마지막 국내 답사일 것 같았기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기억에 가장 깊게 남았던 것은, 국내 어떤 곳에서도 보기 힘든 넓은 평야와 지평선, 그리고 수평선이었습니다. 도심지인 군산을 제외하면, 거의 어느 곳을 가든 평야와 바다, 그리고 그것들에 이어진 지평선과 수평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 지평선이, 일제 강점기의 근대 문화와 함께 전라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벽골제와 조선인, 일본인 지주들의 가옥, 그리고 곰소염전, 수성당처럼, 농업과 어업은 이 지역을 떠받치는 산업의 핵심이었고, 그렇기에 이 산업과 관련 있는 귀중한 역사 유적들이 남았습니다. 그 유적들로 현대의 우리가 당대를 추적해 볼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지평선과 수평선은 당대 전라도를 떠받치던 농업과 어업이라는 산업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국내 그 어떤 곳에서도 보기 드문 지평선과, 드넓은 변산 반도의 수평선은, "전라도"라는 지역의 특별한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경민(19)

안녕하세요. 19학번 장경민입니다.
2박 3일간의 군산, 김제, 부안 답사는 부푼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이었던 2019년 강원도 답사 이후 코로나와 군 복무로 가지 못했던 답사에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가기 전, 발제를 통해 군산, 김제, 부안 답사지의 배경지식을 쌓으며 현지의 해양 문화와 식민도시 건설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답사가 진행되면서 교과서,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보기만 했던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배우며 그동안 쌓았던 역사적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군산, 김제, 부안 답사를 돌아보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경험은 역사를 더 넓게 혹은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답사의 추억

2023.05.10~2023.05.12

안유림(20)

안녕하세요.20학번 안유림입니다.
새만금 지역으로 다녀온 23-1학기 춘계 답사는 저에게 가장 의미있는 답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저에게는 새만금 지역의 지명이 낯설지 않았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곳을 방문해본 적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 답사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전라북도 역사의 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부안 격포리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복귀하는 중에 창밖에서 마주한 노을진 풍경은 답사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답사처럼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활동에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매 답사마다 어떤 식사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 않은 메뉴 선정을 해주신 덕분에 힘을 내서 답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사를 기획하고 안전하게 인솔해주신 답사준비위원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서연(22)

안녕하세요. 22학번 김서연입니다.
지역문화탐구 시간에 2박 3일로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학과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가는 답사라서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곳은 전라북도의 새만금 지역과 군산이었습니다. 답사 수업은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글로 보기만 했던 장소들을 직접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박 3일이라는 시간동안 동기, 선배님들과도 여러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왔다면 별 의미 없이 지나갔을만한 곳들도 함께 다녀오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즐겁게 답사 다녀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연수(23)

안녕하세요! 사학과 23학번 정연수입니다.
2023-1학기에 새로운 경험을 한 번 해보고자 이번 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처음 경험해보는 답사이기에 저에게 낯설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답사 활동에 있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교수님의 설명과 자료집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역사를 배워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이와 더불어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분들이 답사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 유학생의 편지 -

<졸업생으로부터 온 편지>

변규덕(11)
싱가포르국립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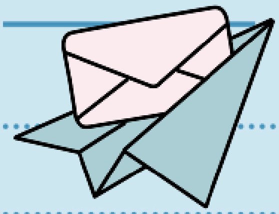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비교아시아학(Comparative Asian Studies)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변규덕입니다.

처음 학과 소식지에 실을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학과 소식지에 네 번의 글을 썼는데 이 글들은 베트남 답사 및 어학연수 후기, 동남아시아 배낭여행 후기 등이었기에 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면 됐지만, 이번에는 졸업생의 입장에서 재학생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싱가포르 유학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소개하고 간단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혹은 해외 유학을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한 번의 좌절과 새로운 도전

2020년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최악의 한 해였을 겁니다. 처음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2020년 3월에 석사논문 자료조사와 박사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출발 일주일 전에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 입국금지를 실시하면서 저의 싱가포르행이 좌절되었습니다. 한국사가 아닌 베트남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석사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3월부터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석사논문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즈음 지도교수셨던 최병욱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당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없던 대만을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모두가 코로나19로 웅크리고 있을 때 앞으로 달려 나가야 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의 싱가포르행 좌절을 경험했던 저는 대만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202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대만 타이베이의 대만사범대에서 중국어를 배우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후 2021년 3월에 싱가포르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 보다 약 1년 정도 늦게 도착했지만 싱가포르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뿌듯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계획한 것은 싱가포르에 한 달만 머무르는 것이었지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있어서 두 달 동안 싱가포르에 있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 유학생의 편지 –

<졸업생으로부터 온 편지>

변규덕(11)
싱가포르국립대학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제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비록 베트남사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는 동남아시아학의 세계적인 거점 중 한 곳이고 동남아연구소 도서관은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첫 한 달은 동남아연구소에 틀어박혀 자료를 읽고 찾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처음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6개 층이 모두 동남아 관련 자료들로만 가득한 것을 보고 꼭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머물렀던 집과 NUS 캠퍼스 내에 위치한 동남아연구소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지만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오가면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자료를 계속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NUS 박사과정에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 진학,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무작정 지원을 하기보다 지도교수가 될 분과 미리 연락을 해 지도학생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나의 연구주제가 경쟁력을 갖는지, 학교 혹은 교수님이 갖고 있는 펀딩은 넉넉한지,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방문한 목적 중 하나가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도교수가 될 교수님께 먼저 제가 누구인지, 석사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싱가포르에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께 답장을 받았고 곧 두 차례에 걸쳐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 동안 저는 메일에서 소개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설명드렸고, 교수님 역시 제 주제에 대해 여러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입학에 필요한 영어 성적, 장학금, 학위 과정 등 박사과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쭤보았고 교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외 유학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장벽은 금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NUS의 경우만 해도 박사과정의 1년 등록금이 약 3,800만 원이고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싱가포르에서의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합친다면 1년에 약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5년의 박사과정 동안 약 3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의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 역시 장학금이 절실했고 교수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장학금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관건은 나 자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연구주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학교에서도 그 연구주제에 얼마나 투자할 가치를 느끼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졸업생으로부터 온 편지>

변규덕(11)
싱가포르국립대학

저는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서는 한국사와 베트남사의 비교 또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사를 연구한다면 '베트남사를 연구하는 한국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NUS의 교수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장학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학과와 비교아시아학 박사과정 두 군데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두 달에 걸친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을 통해 출발 전 설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 박사과정 지원과 기다림, 초조함, 그리고 성취감

저는 2021년 5월 중순 경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같은 해 11월 1일이 NUS 원서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전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성적(IELTS 또는 TOEFL)이 필요했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약 13페이지 정도 되는 지원서와 박사과정 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석사논문 작성과 병행되어야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원서접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교는 NUS 외에도 브루나이의 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교(University of Brunei Darussalam)와 대만 타이난의 국립성공대학(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총 세 곳이었습니다.

원서접수가 끝난 이후 곧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11월 말 경에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고 NUS의 사학과와 비교아시아학 박사과정 인터뷰가 이틀 연속 잡혀 2주 정도를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는 학과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대학원 입학위원회가 면접관들로 참석했고 하나의 인터뷰 당 약 3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었고 여러 교수님들께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동안 너무 긴장하였고 정신없이 지나가서 마치고 나니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가 NUS 박사과정 지원의 공식적인 심사과정이었고 인터뷰가 끝난 이후 NUS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 유학생의 편지 –

<졸업생으로부터 온 편지>

변규덕(11)
싱가포르국립대학

이후부터 정말 피 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결과를 기다리는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초조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실 NUS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이미 2월 말에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가 아닌 장학금 수령 여부였고 이는 여전히 대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NUS 장학금 불합격을 대비해 한국 정부 국비유학생과 국내 여러 장학재단에서 주는 해외박사 장학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비유학생과 국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원서 작성을 시작하기 직전이던 2022년 4월 12일에 NUS 비교아시아학 과정으로부터 학비 전체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에 최종합격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교와 국립성공대학에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장학금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처음 목표로 삼았던 NUS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2021년 두 달간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NUS로의 유학을 결심한지 약 1년 만에 꿈은 현실이 되었고 저의 도전은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3. 글을 마치며

그렇게 5년의 박사과정을 시작한 저는 현재 이곳에서 11-14세기 한국과 베트남의 군주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막 1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역시 싱가포르로의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도전했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면 언젠가 분명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어느 곳엔가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관이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고 분명 진한 후회가 남을 겁니다. 둘째로 외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비록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거나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에서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구절절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작성 후기]

김미지(20) - 아쉬움과 후련함이 공존했던 학기를 마치며

'내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은 상태로 논문 수업을 들어도 되는 것일까?' 이는 논문 수업을 듣기 전부터, 심지어는 듣는 와중에도 많이 했던 생각이다. 4학년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지만,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은 내 탓이었기에 달리 할 말은 없었다.

막막한 심정으로 강의계획서를 읽어보았는데, 첫 시간까지 논문 주제를 정해 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평소에 논문 주제를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좋은 주제를 찾고 싶다는 욕심이 더해져 수업 전 주까지도 주제를 정하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논문 작성 후기가 담겨 있는 학과 소식지를 읽어보았다. 도움이 되었던 공통된 조언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인상 깊게 들은 강의 주제'를 떠올려보고, 혹시 모르니 주제를 여러 개를 준비해두라는 것이었다. 이에 인상 깊었던 수업의 강의노트와 과제물 등을 살펴보았고, 약 7개의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 수업 때 제일 관심 있던 내용을 논문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본인이 흥미 있고 친숙한 분야가 무엇인지 떠올려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충분한 사료와 선행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 정한 주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2순위, 3순위 주제도 비슷한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차선책으로 준비한 6번째 주제가 괜찮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논문 주제를 정할 수 있었다.

주제를 선정했다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사 정리를 해야 한다. 연구사 정리는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그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나 보완점을 찾음으로써 내 논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선행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었기에 중요한 내용과 사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선행 연구들의 사료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에 설득되어서,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인물, 사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이해한 후, 각 시대의 문제의식에 맞지 않아서 '버려진 사실'이 있지 않은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논문의 문제점도 일부 찾을 수 있었고, 내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료를 근거로 해서 나의 문제의식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심지어는 적절한 어휘조차 떠올리지 못해 답답했던 순간도 많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민한 내용을 일단 문장의 형태로 작성해 보는 것'이었다.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한 내용을 말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 나은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었다. 글이 있어야 보다 정확하게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내 생각과 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며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과제를 제출하고,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왜 이 사료를 선택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논문 한 편을 완성하게 된다.

부족한 점이 많아 논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나이기에, 내가 이러한 소감문에서 논문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마음에 걸린다. 그만큼 나는 논문 작성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초조한 적도 많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날이면 날을 새는 것이 일상이었다. 제본 맡기기 전까지도 미흡하다 생각하여 글과 목차를 계속 수정했었다. 또한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도 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기에 논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더욱 부끄럽지만,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때가 되면 어떻게든 쓰게 되고, 해내게 되어 있는 것 같다. 다소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경험해 보니 그러했다. 그러니 미리 준비는 하되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며, 어떻게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한다.

김종휘 조교님(16), 차준협(18), 정효순(21), 김서연(22), 김윤정(22), 전우진(22), 최예진(22), 홍민주(22)

전공수업, 그 후

사진과 하이라이트로 보는
최병욱 교수님의 [동양어원전읽기] 강의
수강 후 떠난 하노이 답사 후기

김윤정 (22)

01 답사의 시작

더웠던 여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노이로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하노이 답사는 김종휘 조교님, 차준협 선배님, 정효순 선배님, 그리고 동양어원전읽기 수강생 5명이 다녀왔다.
설렘 반 떨림 반으로 시작한 여행은 끝날 무렵 조금 더 베트남을 보고 싶다는 아쉬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02 꼬로아성

꼬로아성은 정말 중요한 답사지다. 이 곳을 보기 위해 하노이에 왔다고 말할 정도이다. 수업 교재였던 『대월사기전서』에서 배웠던 꼬로아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안고 방문했다. 비가 한바탕 내린 후 본 꼬로아성은 건너편에 있는 호수와 잘 어우러져 큰 위엄을 보여주는 듯 했다. 기원전 3세기에 지어진 꼬로아성 주변으로 여러 문화재가 있는 박물관과 당시 왕의 딸이었던 미주를 모신 사당 등 볼거리가 다양했다. 호수 가운데 이 성을 지었던 안양왕 석상은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안양왕이 이 성을 짓고 나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다던 쇠뇌를 꼬로아성에 와서 실제로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이 쇠뇌의 방아쇠를 황금거북의 발톱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실제인지 확인을 해볼 순 없었지만 수업시간에 배운 중요한 유물을 실제로 본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꼬로아성을 한바퀴 둘러보다 이상한 길로 빠져 근처 동네 주택가와 개와 소들을 구경한 것도 소소한 재미였다.

김종휘 조교님(16), 차준협(18), 정효순(21), 김서연(22), 김윤정(22), 전우진(22), 최예진(22), 홍민주(22)

전공수업, 그 후

사진과 하이라이트로 보는
최병욱 교수님의 [동양어원전읽기] 강의
수강 후 떠난 하노이 답사 후기

김윤정 (22)

03 탕롱 수상인형극장

탕롱은 베트남의 전통 인형극으로 물속에서 인형을 대나무와 실로 연결해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선보인다.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되며 베트남의 전통과 역사 등의 이야기를 담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대 양옆으로는 베트남의 전통 악기가 있어 매 장에 어울리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 곳은 하노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갔을 때 빈좌석이 몇개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인형들의 행동을 베트남어로 설명해줘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어 팜플렛을 참고하며 인형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04 문묘

문묘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라고 알려졌지만, 우리에게 문묘는 동양어 원전읽기 수업 교재인『대월사기전서』를 편찬한 오사련이란 인물이 있었던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문묘를 들어가면 지식인들의 장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로 건물 입구부터 진사 합격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다. 문묘의 건축물을 보면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었으며 건물 안에 공자상 등 여러 유학자들을 기리는 곳을 보며 한국과는 다른 모습에 신기함을 느꼈다.

김종휘 조교님(16), 차준협(18), 정효순(21), 김서연(22), 김윤정(22), 전우진(22), 최예진(22), 홍민주(22)

전공수업, 그 후

사진과 하이라이트로 보는
최병욱 교수님의 [동양어원전읽기] 강의
수강 후 떠난 하노이 답사 후기

김윤정 (22)

05 베트남 역사 박물관

하노이의 날씨는 35도 가까이 될 정도로 무척이나 더워 많이 돌아다니기 벅차다. 일정이 끝나갈 때면 마지막 곳은 제대로 구경하기 힘들 정도이다. 베트남 역사 박물관은 하루 일정이 끝마칠 때쯤 간 곳이라 체력의 한계로 꼼꼼히 관람하지 못해 아쉬움이 들었던 곳이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주었던 곳이기도 했다. 동양어원전읽기 수업 교재인『대월사기전서』의 원본을 실제로 본 곳이기 때문이다. 교재 속 나온 유적지는 가보았지만 실제 교재를 보러 갈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온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06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베트남의 민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가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며 소수민족이 53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하노이 답사를 하며 박물관 중 제일 기대한 답사지가 바로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이었다. 이 곳에서는 베트남 소수민족의 의식주 등을 재현해 놓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여러 생활용품, 전통가옥 등이 있었지만 전통의상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우리나라는 한복이라는 하나의 전통의상만 있지만 베트남에는 소수민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통의상이 있기에 여러 전통의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리고 여러 색을 가진 반지, 목걸이 등이 전통의상과 조화되며 아름다움에 눈을 사로잡혔다.

김종휘 조교님(16), 차준협(18), 정효순(21), 김서연(22), 김윤정(22), 전우진(22), 최예진(22), 홍민주(22)

전공수업, 그 후

사진과 하이라이트로 보는
최병욱 교수님의 [동양어원전읽기] 강의
수강 후 떠난 하노이 답사 후기

김윤정 (22)

07 닌빈 투어

하루는 특별하게 하노이의 남쪽에 위치한 닌빈을 가게 되었다. 주요 도시인 하노이와는 다르게 시골 풍경이 물씬 나는 곳이었다. 하지만 하노이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날씨도 훨씬 더웠다. 이날 체감온도가 43도였으니 베트남으로 답사를 가서 가장 덥고 체력적으로도 가장 힘든 날이었다. 닌빈에 가서 동남아시아에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인 바이딘 사원에도 가보고, 보트를 타고 노도 저어보고, 항무아 동굴에 가서 하이킹도 하였다. 그 날을 다시 떠올리면 힘들었던 일정에 아찔한 기분이 들지만 닌빈의 아름다운 자연을 생각하면 고생할 만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08 밤 답사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낮과 밤의 답사는 다르니 그 차이를 경험해보라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었다. 이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밤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지에 집중된 낮에 비해 현지인과 여행객이 어울리는 베트남의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하노이의 밤 답사에서 제일 기대했던 것은 야시장이었다. 금, 토, 일에만 열리기에 일정상 하루밖에 야시장을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야시장에서는 여러 공연이 열렸으며 신기한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흥정도 경험해보았다.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기에 쇼핑하러 다니기 좋았다. 밤 답사에는 술이 빠질 수 없는데 하노이의 대표적인 쌀 술인 Men 보드카를 먹어보게 되었다. 40도의 높은 도수로 인한 심한 알코올 냄새에 겁이 났지만 깔끔한 맛이 한국 술과는 달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09 소소한 에피소드

하노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수현 선배님과 하노이 도착 첫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선배님에게 하노이 여행 꿀팁, 그들의 문화, 맛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베트남에서의 첫 식사에 선배님이 요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 개구리 튀김이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 과거 부모님이 먹었던 요리였다고만 들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생선살 같은 맛이 나서 놀라웠다.
또한 숙소 입구 쪽에 있던 작은 제단이 기억에 남았다. 이 제단은 길가나 가게에서도 볼 수 있었기에 신성하며 신비한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는 집 혹은 가게마다 작은 제단을 만들어 앞에 과일, 돈 등을 두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조교 한 마디

안녕하세요. 사학과 조교 김종휘입니다.

조교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지요? 군시절을 제외하고 거의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학과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만큼 인하대학교 사학과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거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과 인연을 뒤로 하고 이제 9월을 마지막으로 학과 조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교로서, 혹은 선배로서 제 소임을 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1년 반의 조교 생활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학과 교수님들, 어떤 일이든지 예의바르고 살갑게 저를 대해주시는 사학과 학우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베트남으로 떠나 인생의 2막을 펼쳐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이곳에서 끊기는 것이 아닌, 타국에 있어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하대학교 사학과 후배 여러분들도 남은 학기 동안 학교에서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조교
김종휘 올림.

INHA UNIVERSITY